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84호 【루계 제26158호】 주체107(2018)년 10월 11일(목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당의 향도의 손길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과감하게 열어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당창건 73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전체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건설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박광호동지, 리만건동지, 김어정동지, 리재일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시고 주체조선의 무궁강대한 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0일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한광상동지, 조용원동지, 권혁봉동지와 국무위원회 일군들인 김창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개건공사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삼지연관현악단의 책임일군들, 극장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1960년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건물로 거연히 솟아올라 오랜 세월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란봉교예극장이 새 세기 관현악생울림극장의 본보기로 현대적이며 화려하게 개건되여 당창건 7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수도시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우리 나라 극장들중에서 력사가 오랜 건물들중의 하나인 모란봉교예극장을 독특한 건축양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축미학적으로도 훌륭하고 음향학적으로도 완벽한 생울림극장으로 개변시킬것을 결심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폐기되다싶이 했던 이 극장의 개건사업을 지난 9개월동안 직접 돌어쥐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음악예술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 주체음악예술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제일 부러워하시며 외우신것이 생울림극장이였다고, 우리 나라에도 훌륭한 생울림극장을 하나 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음성이 귀전에 쟁쟁하다고 하시면서 지난 1철 모란봉교예극장을 생울림극장으로서의 특성을 완벽하게 갖춘 세계적수준의 관현악단 전용극장으로 개건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건설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음향학적요구를 철저히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록있는 설계집단과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여주시였으며 개건공사를 발기하신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400여건의 형성안들과 3,000여페지에 달하는 방대한 극장개건 관련문건들을 세심히 검토비준하여주시고 수십차의 직접적인 파업을 주시였을뿐아니라 흙먼지날리는 공사장에 8차례에 걸쳐 몸소 나오시여 관현악단연주의 생울림상태도 측정해보시고 인민들이 리용할 관람의자에도 앉아보시면서 부족점들을 일일이 바로잡아주시였으며 여러가지 명안들도 밝혀주시며 건설 전 과정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이고 결심이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피끓는 신념과 결사의 의지를 지닌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치렬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놀라운 건설속도를 창조함으로써 극장개건공사를 200여일동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손색없이 훌륭하게 완공하고 나라의 맏아들부대, 근위영웅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각별한 관심과 직접적인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보통강반에 새롭게 면모를 단장하고 일떠선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현대적인 건축음향기술이 안받침되고 고전미와 현대미, 예술화가 조화롭게 결합된 특색있고 화려한 건축조형미를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대전당, 로동당시대 사상예술강국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다.

연건축면적이 3만 6,610㎡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확성장치를 전혀 쓰지 않는 1,200여석의 원형생음연주홀과 관현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창조와 공연활동, 생활조건이 나무랄데없이 갖추어진 록음실, 창작실, 훈련실, 분장실, 사무실, 생활실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사상과 세계적인 음향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생울림극장으로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극장분야에서 오랜 꿈이였던 생울림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과 예술인들이 아름답고 문명한 극장, 남부럽지 않은 예술활동기지에서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극장의 외부와 내부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풍스럽고도 우아하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한 극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수도의 한복판에 멋스러운 건물이 또 하나 들어앉아 풍치를 돋군다고, 여기를 지날 때마다 낡고 오래된 이 건물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꾸려놓으니 마음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극장에 와보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극장 연주홀의 여러 위치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시며 음향특성들을 대비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주홀의 음향이 정말 좋다고, 악기들의 생울림소리가 변색없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울림이 좋으니 관현악연주가 깨끗하고 섬세하게 들리며 정서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악단의 품위도 한결 돋군다고 하시면서 건축음향분야에서 일대 혁신이고 성공한 극장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뜻깊은 우리 당 창건절을 맞으며 개관되는것을 기념하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에 대형피아노를 선물로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의 창작건물과 훈련실건물, 록음실, 생활실, 식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건축형식과 내용이 고상하고 부드러우며 황홀하고 웅장하면서도 현대적 미감과 고전미가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한 음향설계에 준하고있는 만정짜리 음악홀을 건설한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이 극장은 예술의 전당이라고, 설계도 독특하게 잘했고 시공도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런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고보니 장군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음향조건을 갖춘 예술극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극장개건공사를 맡아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들의 일솜씨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고, 위력하고 자랑스러운 근위영웅부대의 믿음직한 뒤받침이 있기에 당중앙의 건설구상과 의도가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받들고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세계적수준에서 질적으로 완공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우리 당창건 73돐을 맞는 전체 당원들과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극장을 받아안게 된 삼지연관현악단의 전체 예술인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은 조직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차례의 공연을 훌륭히 진행하여 내외에 명성을 떨쳐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정열적이고 세련된 예술창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며 우리 국가를 위하여 전심다해 복무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예술활동의 훌륭한 거점을 마련하여준 당의 의도와 기대를 잊지 말고 높은 실력과 예술적기량으로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원형생음연주홀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창건일에 위원장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뜻깊은 기념활영을 하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받아안게 된 삼지연관현악단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끓어오르는 감격과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혁명적인 예술창작창조활동을 맹렬히 벌려 세상천지가 아무리 변해도 오직 우리 당만을 옹위하는 음악포성을 더 높이 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극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이며 향유물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최상급에서 진행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극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애민정치가 구현되여있는 사랑의 문화궁전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불멸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음악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끊임없이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을 천만년 길이 전하며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초급선전일군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킨 모범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조선자연보호련맹 함경북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호는 25년간 학습강사로 사업하면서 수천건의 위대성교양자료들과 상식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실감있게 하여 사람들로부터 《우리 학습강사》로 친근하게 불리우고있다.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훌륭한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일념밑에 강남군 영진협동농장 농장원 윤수하는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앞선 단위들의 성과자료와 결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어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

중앙정보통신국 로동자 송성희는 명도업적단위의 학습강사라는 책임감을 간직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으며 오랜 기술자, 기능공들의 긍정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생동하게 하여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초급선전일군으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황산군당학교 강좌장 주철환은 7 500여건의 5대교양자료와 4 000여건의 상식자료, 1 300여건의 다매체편집물을 비롯한 현실자료들로 강의를 설득력있게 진행함으로써 대중교양의 실효를 높이였다.

개성도시건설사업소 로동자 장창식, 청산군인민병원 과장 최일용은 지난 기간 맡은 혁명과업수행에 언제나 앞장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을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정치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해온 북청군당학교 강좌장 김명학, 평안남도당학교 교무부장 박준키, 리수덕원산교원대학 강좌장 박정탈은 교육사업에 진심전력하면서 수십년동안 선전활동에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모범학습강사들은 사상전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당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평의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네팔련방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맙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탄자니아연합공화국 대통령, 몽골 대통령, 바레인왕국 국왕,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캄보쟈왕국 국왕, 라이왕국 국왕,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까타르국가 추장, 끼르기즈공화국 대통령, 따쥐끼스딴공화국 대통령, 뚜르크메니스딴 대통령,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오만추장국 추장,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멜라루씨공화국 대통령, 짬 마리노공화국 집정관들, 기네공화국 대통령,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세이첼공화국 대통령,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폴고공화국 대통령, 룡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이 열렬한 축하와 친심어린 축원의 인사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세기적인 변혁과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을 맞이하는 온 나라는 끓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으로는 혁명적당건설위업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따르는 충정의 대하가 뜨겁게 물결쳤다.

수도의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고 력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태양헌정의 언덕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군중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 몽골인민당 총비서, 몽골민족민주당 위원장,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통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푼씬뻭크당 위원장대리,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민족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벨가리아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벨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스위스공산당 총비서, 체스꼬 체히-모라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과 국제비서, 아르메니야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대리, 아제르바이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우크라이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이딸리아 정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나이제리아련합당 전국위원장,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총비서, 딸리헌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위원장, 딸리를 위한 련합 위원장, 베넌사회주의당 위원장,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탄자니아혁명당 총비서, 민주꼼고공산당 총비서, 민주꼼고로동당 총비서, 통일된 민주꼼고인협약 전국위원장, 민주꼼고로동자당 전국위원장,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짚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짚트민주동맹당 위원장, 미국로동자세계당 제1비서와 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베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공산당 전국위원장과 정치 및 국제비서, 베네수엘라 뚜빠마로혁명운동 전국지도부 총비서,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 페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총서기, 우루과이혁명적공산당 총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나미비아공화국 부대통령, 이란이슬람협력당 부총비서,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흐르바쯔까사회로동당 국제부장,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 행정비서, 민주꼼고 부뭄바주의통일당 상임비서,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브라질 맑스-레닌주의공산당 국제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부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리사,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부리사장, 조선의 통일과 정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유엔사무총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전 쏘련국방상,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변강 장관, 하바롭스크시장을 비롯하여 중국, 로씨아, 네팔, 말레이시아, 딴마,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싱가로르,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필리핀, 까자흐스딴, 아랍추장국,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룩셈부르그, 몰도바, 벨가리아, 벨라루씨, 벨지끄, 스위스, 스웨리예, 슬로베니아,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뽀르뚜갈, 폴스까,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기네,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세네갈, 잠비아, 꼬뜨디봐르, 폴고, 민주꼼고,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미국, 메히꼬,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볼롬비아, 페루, 아르헨띠나, 에짜도르,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으며 자강력으로 무장하는 나라, 높은 국제적권위와 영향력을 지닌 자주의 성새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력사적인 위업수행에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감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순천제약공장, 남양탄광, 개천시 보무협동농장에 모시였다.

순천제약공장에 조국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이 정중히 모셔졌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나라의 제약공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순천제약공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을 현대적인 제약공업기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남양탄광에 모셔진 모자이크벽화 《탄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험한 막장길을 걸고걸으시며 나라의 석탄공업발전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탄광을 대규모의 석탄생산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수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탄부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은정을 기둠 베풀어주시였다.

개천시 보무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충성의 마음안고 풍년든 농장벌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를 정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제막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출위인을 모시여 우리 당의 존엄과 영광 끝없이 빛난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이한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찬가가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뜻깊은 10월의 아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탈아올랐다.

해마다 맞고보내는 당창건기념일이지만 이해의 10월은 우리에게 류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감격과 환희속에 증산돌격운동으로 날과 날이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 그 거세찬 숨결이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어서만이 아니였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민족번영의 대통로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적사명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대천수별 찬란히 빛나는 돌대문을 지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광장으로 들어섰다.

스치는 바람결도, 활짝 피어난 꽃가지 아름다운 꽃들도, 푸르러 설레이는 나무들도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태양의 성지였다.

공화국기가 창공높이 휘날리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정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경건히 우러를수록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이 땅에 섬스레운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위해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과연 그 얼마이런가.

이름할수 없는 격정의 파도가 우리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소용돌이쳤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삼가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속에는 인민군군인들과 로동자, 농민, 과학자 그리고 룔룔한 청년대학생들과 소년단원들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대성구역의 한 로인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고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고 한평생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우리 수령님들의 천만로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때없이 눈굽이 찌릿해지곤 합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더놓았다.

이것을 어찌 그 한사람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진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긍지높은 삶을 누려온 우리 인민모두가 터치는 심장의 고백이였다.

그의 말이 가슴에 파고들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안겨왔다.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인민을 위하여 말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 조국땅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정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하기에 태양의 성지에는 절절한 그리움만이 아닌 총정과 보답의 맹세가 비껴흐르고있었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온 함경남도출판물판매국의 김은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들어서니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금할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것이 우리 수령님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그럴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천심으로 받들어 우리 조국땅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정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하기에 태양의 성지에는 절절한 그리움만이 아닌 총정과 보답의 맹세가 비껴흐르고있었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온 함경남도출판물판매국의 김은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들어서니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금할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것이 우리 수령님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그럴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천심으로 받들어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을 다해갈 맹세가 더욱 굳어집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수십명 일행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우리와 만난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리준혁동무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을 때마다 정말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대학의 영예를 길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다지였다.

이들의 불같은 마음을 읽으며 우리는 태양의 성지에 훌륭히 꾸려진 공원으로 향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갈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속에 펼쳐진 인민의 공원이였다.

각이한 모양으로 흘어져나오는 분수들과 아담하게 꾸려진 휴식터, 푸른 잎 설레이는 갖가지 나무들과 울긋불긋 아름답게 피여난 꽃들, 푸른 주단을 펼친 잔디…

광장의 윤하를 따라 유유히 노니는 고니, 물오리들도 사람들에게 애틋한 정서를 안겨주고있었다.

정녕 무심히 볼수 없는 광경이였다.

아름다운 풍경앞에서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올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태양칭송의 대화원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갈마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세차게 굽이쳤다.

정녕 그것은 우리 당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의 대하, 충정의 대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어머니 우리 당의 은정속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지연히 솟아난 려명거리의 웅자가 우뚝이 안겨왔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머지않아 이 땅에는 최후승리의 축포성이 리저오르리라는것을.

본사기자 김 일 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김영남동지에게 몽골 대통령,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 필리핀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네데를란드왕국 국왕, 벨가리아공화국 대통령, 벨지끄왕국 국왕, 스웨리예왕국 국왕, 쓰르비아공화국 대통령, 쓰르나고라 대통령, 아일랜드공화국 대통령,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련합왕국 녀왕,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오스트랄리아련방 총독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축전들에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번영, 복리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박 봉 주 동 지

평안남도안의 농장들을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문덕군 룡림협동농장과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광천농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한 궁지를 안고 이룻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는데 력량을 총집중하고있다.

박봉주동지는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기세드높이 가을걷이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을 고무해주었으며 다수확자, 다수확분조, 다수확작업반대렬을 늘이는것과 함께 농사일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광천농장을 돌아보면서 박봉주동지는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지역별, 품종별, 계절별특성에 맞는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련관단위들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동지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현지료해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문화예술전당

당의 은정속에 우리 나라 극장의 본보기로 새롭게 개건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개관식 진행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을 맞으며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희한하게 꾸려져 개관되였다.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극장은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인민의 문화예술전당,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본보기극장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면서도 고전미와 현대미가 훌륭히 결합되고 모든 공간의 예술화가 조화롭게 실현된 극장은 세계적인 생음향극장으로서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문예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현대적인 극장이 일떠섬으로써 문명강국을 건설하는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하고 음악예술창작과 공연활동을 새로운 높이에서 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게 되였다.

당의 은정속에 우리 나라 극장의 본보기로 새롭게 개건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개관식이 10월 10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 문화상 박춘남동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동춘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동지,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문예총중앙위원회 집행위원들, 삼지연관현악단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 극장종업원들,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인민군군인들,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개관사를 박광호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이 되는 뜻깊은 명절에 개관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구현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 본보기극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음향조건을 갖춘 예술극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밑에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음악예술창조와 공연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완비된 세계적수준의 관현악생음향극장으로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문예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극장은 우리 인민과 예술인들이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며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해나갈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강조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은 훌륭하게 꾸려진 극장에서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참신하고 기백있는 예술창조활동으로 우리 인민에게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며 주체음악예술의 독특한 매력과 위력을 떨쳐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주체음악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인민들과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 꿈과 리상이 담겨져있고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명작, 명곡들을 창작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예술활동의 훌륭한 거점을 마련하여준 당의 의도와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실력과 기량으로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가며 우리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극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극장관리사업과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극장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극장건설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인민을 위하고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송월동지는 세상에는 나라마다 자기의 건축미와 문명의 극치를 자랑하는 극장들이 있다고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이 극장처럼 우아하고 황홀한 극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삼지연관현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의 천재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위대한 스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관현악단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보다 철저히 확립하며 음악예술창작과 창조, 공연활동을 당에서 의도하는 높이에 따라세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실력의 높이이자 당에 대한 충정의 높이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 기량제고의 된바람이 악단안에 세차게 일어나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속에서 태여난 삼지연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지배인 신철우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품들여 마련해주신 극장에서 일하는 영예를 안고 관리사업과 봉사활동을 철저히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극장관리사업은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정치적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순결한 충정심과 드높은 애국열의를 안고 장치물 하나, 비품 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극장안팎을 알뜰히 관리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관현악단의 공연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를 친절하게 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극장으로 자랑떨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과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극장이 주체예술의 발전과 문명강국건설에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다짐하였다.

개관식이 끝난후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삼지연관현악단 일군들과 예술인들, 극장종업원들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들어섰다.

참가자들은 훌륭히 꾸려진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참관하였다.

극장의 특색있고 우아한 관람홀과 연주홀, 훈련실 등을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극장이 새 세기 멋쟁이건축물로 전변된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참관을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기지, 예술의 대전당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인민들과 예술인들이 문명한 극장에서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해나갈수 있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관과 주체음악예술발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체득하였다.

생음향극장에 대한 소개에 이어 참가자들은 삼지연관현악단의 연주를 들었다.

극장의 건축과 작품, 지휘자, 연주가들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악기들의 생울림소리가 그대로 살아나는 관현악단의 연주는 풍만한 정서적감화력으로 하여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우리 인민을 최상의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는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머니의 송가, 사회주의찬가를 세세년년 울려갈것이다.

위대한 당에 대한 천만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분출

각지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을 뜻깊게 경축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천만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탁월하고 비범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이 땅우에 혁명의 최전성기, 위대한 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어머니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열기가 온 나라 강산에 차고넘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가장 경건한 마음안고 숭엄하게 꾸려진 광장공원에 들어선 군중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수도 평양과 지방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3돐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국립연극극장에서는 연극 《붉은 눈이 내린다》 공연이 있었다.

강철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어이 완성해가는 황철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속에 자력자강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승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철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이 경축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슬기차고 억센 향도의 힘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이끌어 강국의 위상을 빛내여주는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끝없는 신뢰의 정을 담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를 비롯한 시대의 송가들은 장내를 끝없이 격동시켰다.

황해남도예술극장에서는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예술소조 종합공연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가 진행되였다.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스스럼없이 어머니라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당의 품, 인민의 운명과 찬란한 미래를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러 터친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평안남도의 원아들도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의 노래에 담아 우리 당의 숭고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세계를 소리높이 구가하였다.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였다.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은 선봉팀과 압록강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에서는 경기시작부터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인 공격전을 벌리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한 압록강팀이 1:0으로 이겼다.

태권도전당에서는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과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 남자선수들의 단체맞서기경기가 있었다.

경기에서는 정통무도의 위력한 다격수법들을 적극 활용하며 평시에 다져온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 남자선수들이 우승하였다.

10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쳐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을 경축하는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사회주의교향곡》이 10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무력,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일군들, 공로자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서곡 《빛나는 조국》, 애국가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제1악장 《인민공화국찬가》, 제2악장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제3악장 《위대한 수호자》, 제4악장 《흥하는 내 조국》, 제5악장 《사회주의전진가》, 제6악장 《친근한 음악》 등이 올랐다.

음악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태양의 존함으로 누리에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진막강한 국력과 양양한 전도를 가진 필승불패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를 사회주의교향악의 장엄한 음악세계로 훌륭히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붉은 당기폭에 근로인민대중의 모습을 긍지높이 새기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준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대대로 수령복, 당복이 꽃펴난 조국땅우에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화원을 펼쳐주고 온 나라 인민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훌륭히 형상한 제7악장 《당이여 그대 있기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음악회무대에는 세계명곡들도 올랐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백승의 력사만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음악회는 종곡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로 끝났다.

음악회는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세련된 연주기교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로동당창건 73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3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0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긍지높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는 자랑을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차넘치였다.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10월입니다》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자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조선로동당을 존엄높고 강위력한 불패의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무도회장들에 굽이쳤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를 비롯한 노래장단에 맞추어 춤바다를 펼치는 청년학생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당의 령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청년전위들의 혁명적기상과 랑만의 분출인듯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사회주의전진가》 등의 노래들이 울려퍼지는 무도회장들은 환희와 격정에 넘친 청춘들의 춤률동으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절세위인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찬란히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주며 《인민의 환희》, 《그 품이 제일 좋아》 등의 노래들이 무도회장들에 메아리쳤다.

《김정은장군께 영광을》의 노래로 끝난 무도회들은 조선로동당의 기발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혁명적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에서도 당창건 73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였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3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가 10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수도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10월입니다》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민요독창 《오직 한마음》, 금관4중주와 노래 《당은 장군님의 품》, 남성독창 《그이 없인 못살아》, 경음악 《돌파하라 최첨단을》, 재담 《빛나게 살자》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자주시대를 향도해나가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해온 위대한 당에 대한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심이 설화와 녀성독창과 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혼성중창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뜨겁게 분출되였다.

혼성2중창 《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 혼성중창과 하모니카중주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 등은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총을 들어 청년들을 삶의 참된 길로 이끌어주고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내세워준 당의 령도밑에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난 열혈청춘들의 전투적기백을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맹세를 담은 남성4중창 편곡 《붉은기높이 조선은 나간다》, 《자력갱생기치 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등이 울려퍼지며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청년들의 억척불변의 기상을 과시한 공연은 선동과 합창 《인민의 환희》,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결 승 경 기 들 진 행

온 나라 인민들과 체육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종목별 결승경기들이 10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 체육대회 참가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안의 기관, 기업소일군, 근로자들이 결승경기들을 관람하였다.

결승경기들에 출전한 선수들은 정시에 련마해온 체육기술과 다양한 전술, 고상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대중체육부문 평양시팀과 평안남도팀사이의 남자배구결승경기에서 두 팀 선수들은 첫시작부터 팀의 전술체계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였다.

선수들이 순간타격과 맵짠 강타, 살짝꽁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득점기회들을 마련할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기띤 응원으로 경기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남자배구결승경기는 평안남도팀의 승리로 끝났다.

발목때고 공을며 탈리기와 장애물극복달리기, 귀잡고돌아 징검다리건너 달리기경기에서는 강원도팀, 황해북도팀, 평양시팀이 각각 우승하였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체육종목인 바줄당기기경기는 도대항군중체육대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결승경기에 출전한 평안북도팀과 평양시팀의 선수들은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집단의 단합된 힘과 정신력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시로시로 기세를 올리며 만만치 않은 승벽심을 겨룬 두 팀간의 경기에서는 평양시팀이 이겼다.

민족의 정통무도를 시위하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시범단의 시범출연도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결승경기들은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군중체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폐막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이 폐막되였다. 폐막식이 10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체육상 김일국동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시기장 김춘식동지, 판계부문 일군들, 체육대회참가자들과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종목별순위와 응원순위, 도별종합순위가 발표되였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평양시가 1등으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순회우승컵을 쟁취하였으며 평안남도가 2위를, 평안북도가 3위를 하였다.

폐막사를 최휘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높은 정신력과 체육기술, 집단의 단합된 위력과 고상한 경기도덕풍성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산돌격을 통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온 사회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김정숙평양방직공장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9일에 진행되였다.

판계부문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오경철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70년은 주체적방직공업발전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입히시려고 끊임없는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헌신의 력사로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7(1948)년 10월 10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창립하여주시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십차례나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공장이 나라의 천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현판에 새길 《김정숙령양방직공장》이라는 친필을 안겨주시고 당정책관철의 본보기공장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로동자들에게 대를 두고 깊이 전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집대성되여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난 기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우리 식의 가방천생산 및 염색공정을 확립하였으며 방직종합직장, 염색종합직장, 기료품직장의 현대화를 다그쳐 천생산기지로서의 면모를 더 잘 갖추어놓았다고 강조하였다.

천리마시대 다기대, 다추운동 선구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직포공, 정방공들이 자기 정방의 2배이상에 달하는 기대를 맡아 증산의 동음높이 교대당 생산실적을 훨씬 끌어올리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함숙생들을 위한 로리실습장과 10여동의 온실을 빈틈없이 건설하고 정방원개건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종업원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들의 기호와 취미,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방직제품들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상품, 명제품들을 적극 개발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종업원들을 지식형근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며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 진 경 기 장 새 로 개 건

북방의 항구도시 청진시의 포항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청진경기장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와 시, 군들에도 인공잔디축구장을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개건지휘부를 조직하고 청진경기장의 내부를 빠른 시일안에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네밀였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개건지휘부에서는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청진시안의 각 구역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체육활동기지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에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1만 수천㎡에 달하는 토량을 10일동안에 처리하고 기초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해제끼였다.

이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수천㎥에 달하는 콩크리트포장공사를 단 며칠사이에 끝내고 개건공사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청진경기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인공잔디깔기를 비롯한 공사과제들을 집적으로 끝냈다.

청진신발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카며 배합기와 고압분무기를 비롯하여 개건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륜상주로에 리용할 고무깔판을 생산함으로써 많은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알당겨수 있게 하였다.

청진스케트장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질좋은 외장재를 생산보장하였다.

도녀맹위원회와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힘있는 경제선동파로력적지원으로 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극파기자 리 은 남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구종문 국가체육총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이 1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둘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중국체육대표단은 주체사상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자연박물관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표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을 위하여

연 회 마 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을 위하여 10일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구종문 국가체육총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체육상 김일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리상근동지, 안흥철동지, 판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최휘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이 조선로동당 창건 73돐을 경축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중국의 체육사절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조중판계붙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두터이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습근평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형제적중국인민이 중화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며 중국의 체육인들도 훌륭한 경기성과로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구종문국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김정은위원장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활력있게 전진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을 맞이한 조선인민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나라에서 준 집이 정말 좋다고, 한 일도 멸로 없는데 무상으로 덩실한 집을 안겨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느냐고 격정을 터치는 집주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새집들이로 흥성이는 아빠트 현관앞에서 우리는 낯익은 한 과학자를 만났다.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은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김호영동무였다.

새 집에 살림을 펴깃이 몸만 갈다며 한참이나 격정에 겨워하던 그는 묻누 우리앞에 어리떵의 녀성들을 내세우며 보통강백화점의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라고 소개했다. 알고보니 그의 안해는 보통강백화점 종업원이였다.

새집들이날에 부모형제도 아닌 안해의 직장 일군들이 찾아온것이 이해로웠다. 우리는 그에게서 평범한 과학자가정을 위해 아낌없는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리연희지배인을 비롯한 보통강백화점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새집들이를 앞두었던 어느날 그의 집에 보통강백화점 일군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새 집을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찾아왔다며 부족되는것은 무엇인가 세심히 알아보았다.

며칠후 많은 가정용품들을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또다시 찾아온 이들은 제일처럼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도와주었다.

근 10년동안 과학자의 안해라고 늘 생활을 돌봐준 백화점 일군들이 또다시 자기 가정일을 그처럼 헐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니 그의 안해 박영희동무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박영희동무는 함께 퇴근길에 올랐던 최정심동무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였다.

최정심동무의 남편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30대 박사이다. 그런 그가 2015년 최우수과학자로 선정되였을 때 제일먼저 그의 집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지배인이였다.

그날 지배인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과학자를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왔다며 정말 장하다고,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기 바란다고 교무해주었다.

그후에 당의 은정속에 그들가정이 려명거리 새 집을 받았을 때에는 어머니된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며 진정을 다바친 지배인이였다. …

최정심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영희동무는 생각이 깊어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지배인을 비롯한 백화점일군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자기 가정을 찾으며 지성을 다하는것은 결코 함께 일하는 종업원의 가정이여서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정히 받드는 참된 인간들의 진정이였고 숭고한 공민적자각의 발현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기에 새집들이날 남편은 맡은 과학연구사업을 더 잘하는것으로써 나라의 은덕에,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에 보답할 결의를 더욱 굳혔다.

과학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워줄데 대한 당의 뜻이 현실로 불려나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창창한가.

이것이 바로 과학자가정의 새 집들이날에 우리가 다시금 느낀 것이였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산간도시에 넘쳐나는 약수자랑

제속하여 항로동굴안에서 솟아나는 이 약수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적당하게 들어있어 만성위염, 만성소대장염 등의 질병치료는 물론 이 약수를 덥혀서 온탕을 하면 살결도 부드러워져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판매원은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이때 중년의 한 녀인이 배대로 들어섰다.

알고보니 매대들에 약수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알아보려고 온 시인민위원회 일군인 리정영동무였다.

우리는 그와 마주앉았다.

강계시에 대한 우리의 첫 위재는 이렇게 저녁무렵 약수매대에서 시작되였다.

…지난 5월 어느날 리정영동무는 시당책임일군의 방에서 긴급협의회가 있으니 빨리 도착하라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달음박질하다싶이 하여 방에 이르니 한발 먼저 도착한 여러 일군들이 긴장한 낯색으로 앉아있었다.

(무슨 긴급과제가 제기되였을가?)

이때 종이장우에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던 시당책임일군이 느슨한 웃음을 지은채 고개를 들었다.

《어기 보인 일군들속에 항로약수물 맛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오.》

처음엔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다. 얼마후 한두명의 일군들이 손을 들었다.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던 책임일군이 자책어린 어조로 말했다.

《일군들도 약수물 맛보기 힘든데 인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수라도 마셔야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항로약수를 마시자면 시내에서 퍼그나 떨어진 항로동까지 가야만 했다. 약수를 길어오는 량도 제한되여있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오고가는데 품이 많이 들어 점차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그러다나니 항로약수에 대해 사람들은 차츰 잊기 시작했었다.

《인민의 심부름군인 우리 일군들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약수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겠소. 시내에 약수매대들을 내옵시다.》

그러면서 자기앞에 있던 종이장을 일군들에게 내보였다.

거기에는 시내에 약수매대들을 내올 장소들이 표시되여있었다.

이윽고 열띤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누구인가 조심히 연유문제를 내비치였을 때였다.

《우리 당에서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는 인민들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연유가 모자라면 우리가 등짐으로 날라서라도 인민들에게 약수를 보장합시다.》

약수를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조직이 진행되였다.

이 나날 시안의 일군들이 인민들에게 약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심혈은 그 얼마였던가.

그로부터 얼마후 시내의 여러곳에 약수매대들이 생겨났다.

처음 약수매대에서 봉사를 시작했을 때 인민들은 너무 좋아 그앞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고 한다.

항로약수는 이렇게 강계시의 자랑으로 되였다. 항로약수에 대한 소문은 이웃군들에까지 퍼져갔는데 약수를 맛보려고 일부러 먼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난 전승절에는 시내의 진정로병들에 대한 이동봉사까지 진행하였다며 약수자랑을 늘놓던 리정영동무는 미안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했다.

《전 또 다른 약수매대에도 가봐야 한답니다. 혹시 약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것이였다.

그런 리정영동무의 모습을 바라보며 판매원은 일군들이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약수매대를 찾군한다고 감동에 겨워 말하였다.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자기들이 흘린 땀만큼 인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다는 자각을 안고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미더운 일군들,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에 의해 거리에는 류다른 새 풍경이 하나들 펼쳐진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졌다.

산간도시에 넘쳐나는 약수자랑, 이것이야말로 인민의 참된 충복, 심부름군들에 대한 자랑이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본사기자 신 철

과학자가정의 새집들이날에

얼마전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고층아빠트에서 새집들이가 있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과학자, 연구사들이 당의 은정속에 헌대적인 살림집들을 배정받은것이였다.

나라에서 준 집이 정말 좋다고, 한 일도 멸로 없는데 무상으로 덩실한 집을 안겨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느냐고 격정을 터치는 집주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새집들이로 흥성이는 아빠트 현관앞에서 우리는 낯익은 한 과학자를 만났다.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은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김호영동무였다.

새 집에 살림을 펴깃이 몸만 갈다며 한참이나 격정에 겨워하던 그는 묻누 우리앞에 어리떵의 녀성들을 내세우며 보통강백화점의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라고 소개했다. 알고보니 그의 안해는 보통강백화점 종업원이였다.

새집들이날에 부모형제도 아닌 안해의 직장 일군들이 찾아온것이 이해로왔다. 우리는 그에게서 평범한 과학자가정을 위해 아낌없는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리연희지배인을 비롯한 보통강백화점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새집들이를 앞두었던 어느날 그의 집에 보통강백화점 일군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새 집을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찾아왔다며 부족되는것은 무엇인가 세심히 알아보았다.

며칠후 많은 가정용품들을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또다시 찾아온 이들은 제일처럼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도와주었다.

근 10년동안 과학자의 안해라고 늘 생활을 돌봐준 백화점 일군들이 또다시 자기 가정일을 그처럼 헐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니 그의 안해 박영희동무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박영희동무는 함께 퇴근길에 올랐던 최정심동무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였다.

최정심동무의 남편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30대 박사이다. 그런 그가 2015년 최우수과학자로 선정되였을 때 제일먼저 그의 집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지배인이였다.

그날 지배인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과학자를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왔다며 정말 장하다고,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기 바란다고 교무해주었다.

그후에 당의 은정속에 그들가정이 려명거리 새 집을 받았을 때에는 어머니된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며 진정을 다바친 지배인이였다. …

최정심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영희동무는 생각이 깊어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지배인을 비롯한 백화점일군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자기 가정을 찾으며 지성을 다하는것은 결코 함께 일하는 종업원의 가정이여서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정히 받드는 참된 인간들의 진정이였고 숭고한 공민적자각의 발현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기에 새집들이날 남편은 맡은 과학연구사업을 더 잘하는것으로써 나라의 은덕에,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에 보답할 결의를 더욱 굳혔다.

과학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워줄데 대한 당의 뜻이 현실로 불려나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창창한가.

이것이 바로 과학자가정의 새 집들이날에 우리가 다시금 느낀 것이였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조 중 로 3자협상 진행

우리 나라 외무성대표단 단장으로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외무성 부상 최선희동지는 공현우 중국외교부 부부장 겸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 이고리 모르굴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과 9일 모스크바에서 조중로 3자협상을 진행하였다.

3자협상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되였으며 조선반도정세의 현 긍정적인 추이가 지속되도록 그에 상응한 조치들이 취해지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

또한 조선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터의 서정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한 로동자시인이 들려준 이야기

지난 8월 우리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보수분사업소 1보수직장을 찾았을 때였다.

한 청년이 작업의 쉴참에 로동자들앞에서 열정적으로 시를 읊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비껴들었다.

알고보니 청년은 직장의 소문난 혁신자이며 문학통신원인 최철동무였다.

얼마전에 그가 쓴 서정시 《용접불보라 날린다》에 청년문학상이 수여되였는데 바로 그 작품을 로동자들앞에서 랑송하고있는것이였다.

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에서 날에날마다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직장로동계급의 생활을 반영한 서정시는 우리의 마음도 단번에 틀어잡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표대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위력입니다.》

어떻게 되여 그런 훌륭한 시를 창작할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최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직장로동계급의 생활을 그대로 적었을뿐입니다.》

얼마전 2합성직장의 물평각장 되들이환을 긴급보수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직장의 로동자들은 저저마다 어렵고 힘든 작업의 모퉁이들을 말아나설것을 결의해나섰다. 그 앞장에는 로력영웅들인 최계헌, 김명금동무들도 있었다.

그들은 보수시간을 철쐰 알당길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기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응접도 하면서 로동자들을 이끌어갔다. 이에 고무된 젊은 기능공들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이리하여 며칠은 실히 걸린다던 설비보수전투는 불과 몇시간동안에 결속되게 되였다.

이야기를 마친 최철동무는 전봇뚝에 붙어있는 한장의 종이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갔다.

거기에는 기능이 높은 용접공들이 기능이 낮은 용접공들을 몇명씩 맡아 도와준다는 내용이 씌어져있었다. 척 보기에도 집단주의풍이 풍기치럼 흐르는 직장의 기풍이 한눈에 안겨왔다.

최철동무는 바로 이런 사람들속에서 불파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용접기능이 낮았던 자신이 오늘은 로력혁신자로, 로동자시인으로까지 자라날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의 미풍속에서 위훈이 창조되고 로동자들의 사랑을 받는 시도 태여난다는것을.

본사기자 정 영 철

ㄱ-181161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교육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